

함평 밤호박
신안 선인장
고흥 취나물
진도 울금

웰빙농사 크게 는다

전남지역에 지역특화 작목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작목들은 웰빙 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등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함평군 월야·대동면 지역 농민들은 지난해 50ha에서 215ha의 미니 밤호박 및 단호박을 재배해 4억8천6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미니 밤호박은 일반 호박에 비해

당도가 높고데다 신장 및 심근경색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입증돼 판매가 늘고 있다. 고흥군의 경우 도화면 봉산리를 중심으로 400여 농가가 135ha에서 7천600여의 취나물을 생산, 연간 3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도화면 취나물은 갈슘과 인, 철분 등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고 춘곤증 예방과 혈액 순환 등에 효과가 좋아 서울가락시장을 비롯해 부산 등 전국에 판로가 확보돼 있다. 진도군 지산·임회면 농민들은 지

난해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고 염색제로도 사용되는 울금 120여t을 생산, 3억6천3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진도지역은 비옥한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해 경기도 및 제주도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울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양호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지산면 강항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2005년부터 울금 가공제품인 '속이 편한 왕실울금 분말' 등을 생산해 신세계백화점, E-마트는 물론 온라인

판매로 매년 1억5천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 신안군에서도 지도읍을 중심으로 21개 농가에서 선인장 7.3ha를 계약 재배해 지난해 2억4천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 이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특화 및 새로운 고소득 작목 발굴 및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광식기자 redplane@

“장작가마에 도기 구워보세요”

왕인축제기간 체험프로그램 마련

영암 도기문화센터가 오는 31일부터 4일간 열리는 '영암 왕인문화축제' 기간 동안 장작 가마 '영암요(靈巖窯)'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도기문화센터는 이번 축제기간중 장작 가마에서 구워 도기를 재현하는 것을 비롯 다기(茶器)세트, 소품류 등을 제작, 차예회와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또 다양한 색상의 도자기용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핸드 페인팅 체험, 원하는 한자를 황토 도판에 쓰는 천자문 쓰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소망의 벽' 천자문 쓰기는 조별타일에 천자문과 함께 참여자들의 소망을 기록한 후 구워서 완성시켜 센터 내에 전시할 계획이다. 문의 (061) 470-2566 /영암=김현남기자 hnkim@



장성 건널목 입체화 사업 추진

郡-한국철도공단 협약

2차로 지하통로박스 설치

북일면 안정교 재개설도

장성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장성 건널목 입체화와 안정교 재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장성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 철도시설 공단과 장성건널목 입체화 및 북일면 월계리 안정교 재

개설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장성 건널목 입체화사업은 100억 원을 투입, 인도를 포함해 2차로의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한다. 북일면 월계리 안정교는 9억원을 들여 교량 길이 33.9m 폭 10m 규모로 재개설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용지매수, 인·허가 업무 등이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 24호선을 가로지르는 장성읍 건널목은 지난 1914년 호남선 개통

이후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체증을 유발해 입체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1987년 철도 복선화사업으로 건설된 안정교는 다리 폭이 협소하고 2004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재개설이 시급한 D급 판정을 받았다. 이성권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민기자 jbgoo@



동백꽃잎 '붉은비단'

처럼 깔려 있다. '목촌 동백림'은 마을입구 600여평에 수령 250~300년생 동백나무 143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황룡강 생태 체험
관광 단지화 추진

황룡강 일대에 생태문화 관광단지화가 추진되고 있다. 광산구는 28일 '황룡강 일대 친환경 경직 이용방향 제시를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과 환경·생태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룡강 일대의 자연생태를 활용한 문화 체험공간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룡강의 생태 환경이 우수하고 보존 가치가 큰 만큼 견학이나 체험학습을 위한 생태문화 단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습지 활용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대기자 wtkee@

나주시 '지방재정 최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5억 지원받아

나주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 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표창과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나주시는 특히 지자체 지방재정분석 평가의 최상등급인 'A'등급 군(群) 가운데 '최우수 시'로 선정돼 재정을 안정적으로 집행·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각종 유사 행사 통합 등으로 경감경비 절약을 유도하고 특히 보건·농업분야에서 전년에 비해 5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또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 2005년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 27억 7천만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와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제를 도입, 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6일 충청남도 대강당에서 '2006년도 지방재정 분석 우수기관 정부표창 수여' 행사를 갖고 지방재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나주시와 경기 연천군·대구 달서구 등 5개 지자체에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음주단속

구례경찰 행락객 사고예방

구례경찰서(서장 이희성)가 행락철을 맞아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일대에서 대형 관광버스들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례경찰은 음주단속과 함께 자체 제작한 교통사고 예방 및 관광안내 전단지 배부하고 있다. (사진) 노고단 일주도로 일대는 대형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경찰은 매년 행락철에 대형관광버스 등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왔다. 한편 구례경찰은 지난 2월부터 '문화재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경찰은 문화재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문화재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해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례지역에는 국보 6점을 비롯해 보물 12점 및 다수의 지방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새 얼굴

“예방활동·민생치안 유지 최선”

김재병 목포경찰서장



“공익사범과 서민침해 생활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효과적인 예방활동으로 민생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재병(52) 목포경찰서장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해 법과 원칙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기풍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신인 김 서장은 지난 1983년 간부후보 31기로 경찰에 입문, 강진·영광경찰서장과 전

남청 경무과장, 광주청 개청준비단 경무과장을 지냈다. 지난 1998년 근정포장과 2003년 대통령표창, 2005년 녹조근정훈장 등 28회에 걸쳐 각종 훈·포장을 수상한 기획·수사통, 가족으로는 부인 박연순(48)씨와 2남이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notices, classified ads, and promotional banners. Key features include:
- A large banner for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Used car purchase/sale) with a cartoon character.
- Multiple small classified ads for real estate, vehicles, and services.
- Promotional banners for local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 A 'SONY' logo and other brand-related text.